류현진 전반기 〈맑음〉…10승 달성·방어률 3.44

14일 샌디에이고전 6이닝 10K 무실점 '완벽투'

커브·슬라이더 가다듬으며 한국인 최다승 도전

'괴물'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며 10승 5패, 평균자책점 3.44라는 빼어난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메이저리그 2년차인 류현진은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지난해 전반기 성적인 7승3패, 평균자책점 3.09를 뛰어넘었다. 류현진은 여세를 몰아 박찬호가 전성기인 2000년에 기록한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한 시즌 최다승(18승) 기록에 도전한다.

◇한층 예리해진 커브와 슬라이더 =직구와 체인지업 투 피치로 상대 타선을 공략하던 지난해의 류현진이 아니었다. 류현진은 비시즌 동안 커브와 슬라이더의 예리함을 키우는데 공을 들였다. 묵직한 직구와 명품 체인지업은 여전했고, 겨우내 연마한 커브는 승부구로 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었다. 슬라이더 구속은 시속 140㎞까지 끌어올렸다.

신무기를 장착한 류현진은 다양한 볼 배합으로 타자들을 상대했다. 미국 스포츠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류현진의 체인지업 구사 비율은 지난해 23.3%에서 올해 19.8%로 급감한 반면 커브의 구사율은 9.5%에서 11.0%로 뛰어올랐다. 9이닝당 삼진 개수는 지난해 7.22에서 8.00으로 상승했고, 볼넷 개수는 2.30에서 1.81로 떨어졌다.

류현진은 시즌 초반 제1선발인 클레이튼 커쇼가 허리 부상으로 한 달간 등판하지 못하자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해냈다. 류현진이 반등할 발판을 놓자 다저스는 차곡차곡 승수를 쌓아나가며 한때 9경기 반까지 벌어졌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승차를 좁혀갔고, 1게임 차 앞선 1위로 전반기를 마쳤다.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진 류현진 = 류현진의 전반기는 큰 고비가 있었기에 더 드라마틱했다. 류현진은 어깨 부상을 당해 4월 28일자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올랐다.

다저스 입단 후 처음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류현진은 복귀전이던 5월 22일 뉴욕 메츠전에서 6이닝을 2실점으로 막고 승리 투수가 됐다. 이후 7경기에서 6승(1패)을 쓸어담는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5월 27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는 7이닝 퍼펙트 투구를 선보였다.

부상을 이겨내자 이번에는 '9홉수' 불운이 찾아왔다.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한 류현진은 지난 9일 디트로이트전에서 2.1이닝 10피안타 7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그러나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14일 6이닝 동안 사4구 없이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인 삼진 10개를 곁들인 2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2000년 박찬호도 이루지 못한 전반기 10승을 이뤄냈다.

/연합뉴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 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류현진은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이날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10승을 챙겼다. /연합뉴스

KIA, 4강 불씨 살아있다

프로야구 전반기 6위로 마감…22일 재개

필 등 부상선수 복귀…하반기 도약 기대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4강을 위한 '복선'은 깔아놓았다.

KIA 타이거즈가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끝으로 가장 먼저 전반기를 완주했다. 15·16일 휴식기에 이어 17일부터 올스타브레이크가 시작되면서 8일간의 휴식이 '호랑이 군단'을 기다리고 있다.

81경기를 소화한 6위 KIA의 성적은 38승43패(승률 0.469). 최상의 시나리오는 주말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위닝 시리즈 이상을 가져오며 여유롭게 휴식기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1승2패를 기록, 오히려 4위권에서 한발 더 물러났다.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4강 복선은 깔아놓았다. 듬직했던 홀튼의 하향세 속에 송은범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면서 후반기 마운드 싸움에 청신호가 켜졌다. 복귀전에서 사구 퇴장을 당하기는 했지만 공에 위력은 있었다. 임준섭·김병현도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등 시즌 초반에 비하면 선발진이 안정됐다.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마무리 어센시오도 투구 습관(쿠세)을 잡으며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다.

타선에도 플러스 요인이 있다. 손등 골절로 재활을 해왔던 필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 지난 시즌과는 다른 이범호·안치홍의 파워에 필의 결정력이 더해진다면 어느 팀 못지 않은 화력을 갖추게 된다. 포지션 운영에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

KIA는 전반기 최종전이었던 13일 1루 자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발바닥 통증 속에서도 1루를 지켰던 김주찬이 지명타자로 다시 자리를 옮기면서 생긴 고민이 있었다. 김주형도 발목 통증 등으로 엔트리가 말소된 상황. 박기남·김다원의 이름까지 거론됐다가 오더 제출 전 이범호가 1루로 자리를 옮겼다. 신인 강한울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며 내야 계산이 복잡했었다.

휴식도 반갑다. 일정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고된 전반기를 보내느라 여기저기 부상이 엄습했다. 김주찬이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나지완과 안치홍도 무릎이 좋지 않아 부상 투혼을 해왔다.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수석코치로 KIA의 면면을 지켜봤던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긍정적으로 KIA의 후반기를 전망하고 있다. 키는 역시 김진우·송은범·김병현이다. 홀튼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세 선수의 역할에 따라 4강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어차피 불펜이 약하기 때문에 이는 돌려막기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선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타격도 괜찮고 선수들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4강이 가능하다. 후반기 초반이 중요하다. 앞으로 20경기가 매우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KIA는 15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 16·17·18일 광주와 함평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19일에는 자체 청백전을 갖고 전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전반기 '흐림'…타율 0.242

부상으로 개인 통산 최악 성적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톱타자 추신수(32)가 급격한 내리막을 탄 채 전반기를 마감했다.

추신수는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6-8로 뒤진 7회 대타로 출전해 삼진으로 물러났다. 9회에도 좌익수 뜬공에 그쳐 2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끝낸 추신수는 전반기 9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2(322타수 78안타), 홈런 9개, 33타점, 출루율 0.362를 기록했다.

7-10으로 패한 텍사스는 8연패에 빠져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 가장 낮은 승률(0.400·38승 57패)로 반환점을 돌았다.

추신수의 위상은 자유계약선수(FA) 최고 모범 선수에서 위기에 빠진 공격 첨병으로 급추락했다.

스프링캠프에서 왼쪽 팔뚝을 다치며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시즌을 맞은 추신수는 초반 베테랑의 노련미로 고비를 넘기며 새 팀 텍사스에 성공적으로 녹아들었다.

뛰어난 선구안을 발판 삼아 4월에만 타율 0.319, 출루율 0.446을 기록하고 공격 첨병으로 맹활약한 추신수는 5월 6일 타율 0.370, 출루율 0.500으로 아메리칸리그 두 부문 1위에 오르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4월 21일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주루 중 왼쪽 발목을 다친 뒤 통증이 본격 도진 5월 중순부터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졌다. 5월 말 타율 0.289, 출루율 0.412로 성적이 하락했다. /연합뉴스

김성연, 러시아 유도대회 동메달

2014 러시아 그랜드슬램 유도대회 여자 70㎏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맨 오른쪽)이 금·은 메달리스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女70㎏급…프랑스 에망 꺾어

안산시청 이정은 78㎏이상 '은'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이 '2014 러시아 그랜드슬램 유도 대회' 여자 70㎏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성연은 지난 12~13일 러시아 투멘에서 열린 여자 70㎏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프랑스의 헤브리세 에망을 상대로 지도승을 거두고 동메달을 따냈다.

부전승으로 출발한 김성연은 2회전에서 칸토니 줄리아(이탈리아)를 누르기 한판승으로 제압한 뒤 3회전에서는 콘웨이 샐리(영국)를 업어치기 유효승 꺾었다.

그러나 김성연은 준결승에서 폴링 킴(네덜란드)을 만나 아쉽게 지도패로 물러났다. 그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헤브리세 에망을 지도승으로 꺾었다.

안산시청의 이정은은 여자 78㎏ 이상급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정은은 1회전에서 마리아 세케로바(러시아)를 지도승으로, 2회전에서 이나모리 나미(일본)를 누르기 한판으로, 준결승전에서 마리아 수엘렌 알테만(브라질)을 허리후리기 유효승으로 돌려세우고 결승에 올랐다.

이정은은 결승에서 세계랭킹 6위인 야마베 가나(일본)를 만나 2분 만에 받다리걸기 한판을 내주며 아쉽게 금메달을 헌납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생활체육회, 청소년 캠프 성료

보성 율포서 100여명 참가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지난 12~13일 이틀간 보성군 율포 오토캠핑장에서 청소년과 부모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오리엔티어링 캠프'를 개최했다.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하나인 이 캠프는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경험과 올바른 생활체육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게임 등 오리엔티어링 체험은 물론 야외 레크레이션, 캠프파이어, 차만들기 체험 등 자연체험도 진행했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해 성취감과 또래 간 유대감을 높이는데 전력하고 있다"며 "이번 캠프가 생활체육을 통해 소통과 협동심,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안치홍, 인천AG 예비 엔트리 탈락

한화 정근우 '경험'에 밀려

양현종·나지완·김주찬 합류

타율 10위(0.341)·타점 9위(60점)의 안치홍(KIA)이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2차 예비 엔트리(37명)에서 탈락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KBA)가 14일 인천 아시안게임 기술위원회(김인식 기술위원장)를 열고 37명의 2차 예비엔트리를 발표했다.

1차 60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든 2차 명단에 KIA 투수 양현종과 외야수 나지완이 그대로 이름을 올렸고, 2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하고 있는 외야수 김주찬이 새로 엔트리에 합류했다.

하지만 좌완 심동섭과 내야수 안치홍은 2차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최근 가장 무서운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안치홍이 빠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안치홍은 6·7월 25경기에서 0.383의 타율과 함께 10홈런 35타점을 기록하는 등 시즌 타율 10위 타점 9위에 랭크되어있다.

눈부신 활약에도 정근우의 경험과 서건창의 활약, 오재원의 멀티능력에 밀리며 2차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기술위원회 3차 회의는 7월 말 열릴 예정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2차 예비 엔트리 명단

▲투수(16명) = 양현종(KIA) 윤성환·안지만·장원삼·차우찬·임창용(이상 삼성) 윤명준(두산) 유원상·봉중근·우규민(이상 LG) 손승락·한현희(넥센) 김승회(롯데) 김광현(SK) 이재학(NC) 이태양(한화) ▲포수(3명) = 양의지(두산) 강민호(롯데) 이재원(SK) ▲내야수(10명) = 박석민·김상수(이상 삼성) 오재원(두산) 박병호·서건창·김민성·강정호(이상 넥센) 황재균(롯데) 정근우·김태균(이상 한화) ▲외야수(8명) = 나지완·김주찬(이상 KIA) 최형우(삼성) 김현수·민병헌(이상 두산) 이진영(LG) 손아섭(롯데) 나성범(NC)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